



본격 휴가철 명사심리 인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27일 오후 안도군 신지면 명사심리 해수욕장에 몰려 가장 많은 행락 인파가 몰렸다. 3만4천여명의 피서객이 몰린 이날 해수욕장 백사장에 형형색색의 비치 파라솔과 천막이 펼쳐져 있다.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쇠고기 불신 ... 한우농 '한계상황'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가 28일 국내에 재진입한 가운데 광우병 여파로 쇠고기 불신이 한우 고기에까지 불뚱 튀면서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한우농가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사료값마저 지난해보다 33%까지 치솟은데다, 산지소값도 급락하면서 소 사육 포기를 고려하는 농민들이 급증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한우농가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미국산 둔갑 우려 소비 크게 줄어 사료값 급등에 소값은 급락 '한숨'

27일 농협과 축산농가, 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16개 도축장에서 도축된 한·육우 숫자는 지난 4월 7천62마리, 5월 6천67마리, 6월 5천177마리로 크게 줄어들었다. 할인점이나 정육점 등 일반 소매점에서 한·육우고기 소비가 급감하는 바람에 도축두수가 두 달만에 1천885마리(4월대비 27%)나 감소

한 셈이다. 광주신세계이마트 한우고기 매출의 경우 지난 4월 6천900만원에서 5월 6천만원, 6월 5천500만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등 한우 고기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우 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 5월 22일 1등급 갈비(500g)가 3만3

천원에서 7월 22일 현재 3만3천400원, 등심 3만97원→3만91원, 불고기 1만5천331원→1만5천991원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미국산 대신 인기를 끌고 있는 호주산은 같은 기간동안 방장갈비가 9천275원→1만963원, 등심 1만9천원→2만780원, 불고기 7천150원→7천517원으로 7%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산이 호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우 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광주 동구 A 음식점 대표는 "혹시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쇠고기 불신 풍조가 확산되면서 한우고기를 찾는 고객들이 부쩍 줄었다"고 말했다.

한우 고기가 판매부진에 빠지면서 산지소값은 큰 암소(600kg)가 지난 5월 22일 443만3천원에서

두달만인 7월 22일 현재 404만9천원으로 38만4천원(8.6%) 하락했다.

큰 수소(600kg)는 같은 기간동안 383만원→346만2천원으로 36만8천원(9.6%), 암송아지는 169만6천원→143만원으로 26만6천원(15.7%) 떨어졌다.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배합사료 값은 지난 6월 기준 1kg당 463원으로, 지난해 5월의 347원보다 33%나 올랐다.

김남배 전남한우협회장은 "광주·전남지역에만 한·육우 사육두수는 35만 마리에 달하고 있지만, 한우고기 소비가 급감해 걱정이 크다"면서 "특히 지난해보다 사료값이 크게 인상되면서 3만여 한우 사육농가 중 상당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농산물 경쟁력 크게 떨어질 듯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공산품은 수출 활력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농산물 수입관세가 대폭 감축돼 전담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쌀은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와 2004년 쌀 수출국들과의 개별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DDA협상결과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 WTO 주요국은 농업부문을 개발도상국을 기준으로

관세 감축률을 ▲양허관세 30% 이하 ▲30% 초과 80% 이하 ▲80% 초과 130% 이하 ▲130% 초과 품목에 대해 각각 33.3%, 38.0%, 42.7%, 46.7%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을 경우 농산물 관세가 현행 대비 평균 3분의 1 정도 낮아진다. 실제 현행 수입관세가 270%인 고추의 경우 관세가 46.7% 깎여 최대 144%까지만 관세를 물릴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입농산물 품목은 세번코드(HS코드) 기준 1천452개로, 이 가운데 100%를 넘는 고관세 품목은 분유, 감귤, 양파, 고추, 마늘, 감자,

전분, 콩 등 모두 126개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민감품목, 특별품목, 개발도상국 긴급 수입관세(SSM) 등 국내 수입과장이 큰 품목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상당 부분 허용된 만큼 실제 농산물에 미칠 타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산품에서 우리나라는 관세·비관세 장벽이 낮춰짐에 따라 수출에 활력을 얻게될 전망이다. 공산품 관세에서 상당 역할을 하게 되는 감축계수를 개도국의 경우 일부 품목의 관세 감축을 면제하는 신축성을 부여하는 대신, 20~25%선으로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윤정기자 penfoot@

"호남 무소속 선별 복당"

정세균 민주 대표, 지방신문협회 인터뷰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호남지역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복당과 관련, "일괄 복당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련기사 5면>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도 국회가 보수화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대표실에서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를 갖고 호남지역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 "심사를 통해 당헌·당규대로 판단할 것이며 일괄 복당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개헌 이슈와 관련, "현재 국회가 원구성도 못하는데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다"며 "특히 국회는 보수화된 측면이 강해 당리당략적인 개헌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수 야당의 한계 극복 방안과 관련, 정 대표는 "국민과 함께 하며 수

적 열세를 극복해 나갈 생각이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중시하는 '뉴 민주당 플랜'을 토대로 수권 정당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150일에 대해 정 대표는 "정책의 일관성과 국정철학이 없고, 국정운영시스템도 형편없는 야마추어리즘의 극치"라며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국정운영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안타깝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기초단체장 공천을 배제하고 기초의원들은 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美 소갈비 4년 7개월만에 재상륙

새 수입조건 따른 쇠고기 중 처음 들어와

미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LA갈비'가 지난 2003년 12월 이후 4년 7개월만에 다시 들어온다.

2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미국산 방장 쇠고기 2.2t이 28일 낮 12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

다. 이는 국내 업체 '네르프'가 미국 '크릭스톤 팜스'사로부터 수입하는 것이다.

이번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4~5월 한·미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6월 26일 고시, 발효된 새

수입조건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새 수입조건 고시 한 달만인 26일 현재까지 이미 미국산 쇠고기 4천300t(273건)이 검역필증(검역합격증)을 받았지만, 이는 모두 지난해 10월 초 등배 발견으로 검역이 전면 중단된 뒤 국내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

국산 '뼈 없는' 쇠고기였다.
/윤정기자 penfoot@kwangju.co.kr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
Rubens, Baroque Masterpieces
2008.7.16 ▶ 11.9
광주시립미술관

'플란미스의 개' 도록은 루벤스가 프랑스에 찾아옵니다.

문의: 062-367-3000
주소: 광주광역시 중구 광주시립미술관